

국내 의류산업의 생산특성에 따른 QR 시스템 도입에 대한 연구

천 종 속 · 오 세 정*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국내 의류 산업은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속 대응 방식(Quick Response System, QRS)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의류 산업의 신속 대응 방식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유통 구조에 한정되어 있고 의류 품목별로 세분화되지 않아 산업에서의 활용성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류 산업의 품목별 특징을 고려해 국내 캐주얼웨어를 중심으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의류 생산과 관련된 QR 기술 요소의 도입 여부와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유연 생산의 측면에서 생산 업체의 사례 연구를 통해 생산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여 생산 특성에 따른 신속 대응 시스템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내 의류 업체는 캐주얼웨어 38개 업체와 4개의 생산 협력 업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QR 생산을 위한 QR 기술 요소의 도입 여부를 분석한 결과 재고관리에 해당하는 기술요소의 도입이 가장 높았고, 유연 생산에 관련된 기술요소 도입은 낮았다. 또한 QR 기술요소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업체들은 QR 기술요소 사용의 장점을 인식하여 도입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반응생산 물량비에 따른 QR 기술요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한 결과 반응생산물량이 많은 업체에서 POS 데이터 활용과 계획단계의 소비자 의견수렴 필요성을 반응생산물량이 적은 업체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반응생산 물량이 적은 업체의 경우 POS 데이터를 활용한 원활한 상품 회전이 필요하고, 기획하여 생산하는 물량의 비율이 크므로 상품계획 단계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처음부터 생산물량을 조절하여 재고를 줄이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반응생산 물량비에 따른 생산의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반응생산물량이 높은 업체일수록 기획에서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응생산 물량비율이 생산 소요시간의 단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4. 생산방식에 따른 생산형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중품종 중량생산이나 다품종 소량생산의 경우 국내 하청생산에 치중되어 있었고, 다품종 대량생산의 경우 국내생산과 해외생산을 병행하는 업체가 많았다. 다품종 대량생산 업체의 경우 국내 생산을 통한 시간의 효율성과 해외생산을 통한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품의 특성에 따라 국내생산과

해외생산을 조화시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5. 유연생산의 측면에서 의류생산의 효율성을 비교한 생산업체 사례연구 결과 한 품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여러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보다 생산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목별 생산 전문화가 이루어진 공장 체제가 필요하며, 전문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동화 기기, 공정분석을 통한 라인 구성을 통해 유연화된 생산체제를 갖추어 봉제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캐주얼 업체의 QRS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반응생산물량이 적은 업체에서는 상품계획시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히 판단하여 재고량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며 POS 데이터를 이용한 상품회전이 용이한 상품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중품종 중량이나 다품종 소량생산의 경우 국내 하청방식을 사용하여 생산기지의 근접성을 이용하고, 다품종 대량생산의 경우 국내생산과 해외생산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유연 생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평가된다.